

# 이재오 “손 내밀면 화해? 오만한 독재 발상”

## 정몽준 “경제발전 유신? 국민 돼지로 보나”

### 새누리 비박 원조들, 박근혜 비판 날 세워

비박(비박근혜) 원조인 새누리당이 이재오 의원과 정몽준 의원이 30일 박근혜 대선후보와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박 후보 측이 두 의원에 대해 화해의 손짓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정 의원은 이날 박 후보의 통합 행보에 대해 “내가 찾아가 내가 손 내밀면 화해와 통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역사

인식을 갖고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선거를 눈앞에 두고 무슨 화해니 통합이니 하고 돌아다니려면 먼저 무엇이 다른지 거리를 좁히는 일이 우선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나라를 구하는 일은 자기를 버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지칭하지 않았지만 최근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려다 유족들과 상충자 해고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박 후보를 겨냥한 말로 해석됐다.

이 의원은 이어 논어의 ‘근자열원자래(近者悅遠者來: 가까운 사람과 멀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 구절을 인용하면서 “큰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조언했다. 당내 반대 세력을 진정시킬 것 포용하라는 발언으로 풀이됐다. 정 의원은 이날 ‘1972년 유신은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박근혜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홍사덕 전 의원의 전날 발언에 대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격”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10월 유신이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에 크게 실망”이라며 “유신의 논리란 먹고사는 것은 권력이 해결해줄 테니 정치는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신과 동시에 북한도 주체사상과 주석제를 명기한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했다고 해야 하는지”라고도 했다. 이에 앞서 홍 전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1972년 유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력 연장보다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한 조치였다”며 “유신이 없었으면 100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과거사 문제를 고리로 박 후보와 이재오·정몽준 의원 등 비박 그룹과의 갈등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모양새다. 또 박 후보의 최근 행보가 ‘일방통행’으로 간주되면서 박 후보가 이·정 의원의 회동을 시작으로 물꼬를 틀 것으로 보였던 당내 화합 행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부, ICJ 거부 ‘독도 구술서’ 日에 전달

## 日 단독 제소 검토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30일 일본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구술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면서 일본의 ICJ 공동제소 제안을 일축하고 우리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구술서에는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입장이 담겨있고 간결하게 담겨있다고 말했다. 구술서 전달을 위해 외교통상부 최봉규 동북아 1과장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이날 오전 11시 청사로 불렀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일본식 표기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ICJ 제소 및 조정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어 정부의 반박 구술서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이 한일 외교갈등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참외원에서 문해결의안까지 통과돼 정권 기반이 더 취약해진 일본의 독도 정권은 10~11월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ICJ 단독 제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본이 ICJ에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하더라도 서류 준비 등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이상 급격하게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우리 정부도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고, 일본도 지난 24일 총리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추가 조치를 언급하지 않아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은 국제적 홍보·여론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 외교채널 통해 주고받는 외교문서의 일종

#### ■ 구술서란

우리 정부가 30일 일본 정부에 보낸 ‘구술서(口述書)’는 쉽게 말해 외교채널을 통해 주고받는 외교문서(외교공한)의 일종이다. 외교상 상대국과 행한 토의의 기록 또는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하는 외교문서이다. 구술서는 모두 외교공한의 한 종류인 프랑스어 ‘Note Verbale(절의, 외뢰, 통고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을

번역한 말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구술서라고 직역해 외교편람 등에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이 외교문서가 말(口)보다 우선(上)한다는 취지로 구상서(口上書)로 번역해 사용한다. 구술서는 통상적으로 내용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제소하자고 보내온 구상서와 우리 정부 보낸 구술서 역시 분량이 길지 않다. /연합뉴스

# 광폭 행보 박근혜, 2030에 다가서기 ‘글썸’

## “과격 전략 필요” 당 일각서 지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자신의 취약층인 2030세대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부족하게 아니냐는 지적이 최근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재역 참배와 이회호 여사 방문, 비록 무산됐지만 전태일 재단 방문 등의 이른바 국민대통합 행보를 통해 외연 확장에 공들이면서도 젊은층을 공략할 이렇다할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후보는 태풍 불라벤이 지나간 다음날인 29일엔 일정이 없었다. 30일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석이 공식 일정의 전부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까지 한 달의 황금 기간에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모여들 정도다. 특히 박 후보가 절대적으로 약한 계층으로 꼽히는 젊은층 2030 세대에 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갈 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당의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 지명된 이래 그와 관련된 일정이 없고, 지난 23일 대학생 등 특급 토론회에 참석하고 사흘 뒤 홍대 앞 거리를 찾은 것이 전부다. 한 당직자는 “중요한 것은 2030

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줄 수 있는 이미지텔링”이라며 “직업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손을 통해 올림파티 스타일을 바꿔 보고, 동대문 패션타운의 젊은 디자이너로부터 웃을 맞춰 입는 등 기존의 박근혜 스타일을 넘어서는 과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선 공개방송 함께 관람하기, 언론을 동반하지 않는 젊은이들과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식의 과격으로 2030과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당정,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확대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따름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과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화학적 거세의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당은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사도 먼저 해외사례와 효과를 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치료 청구 요건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가지다. 당은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양형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구체적인 양형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2000년 이후’로 소급적용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하게 요구했다. /연합뉴스

## 새누리 전남도당위원장 직대 주영순 의원

### 광주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7명 인선

새누리당은 30일 전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주영순 의원(비례대표)을 임명하고 공석 중인 광주지역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7명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석인 광주지역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7명을 선정, 발표했다. 동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김

영달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서구 갑 조직위원장에 심관구 전 광주이동통신(주) 대표이사, 각각 임명됐다. 문상욱 전 여수엑스포 유치위원회 이사는 남구 조직위원장에, 장호직 현 삼호의료재단 이사장은 북구 갑 조직위원장에, 김윤세 현 광주대 학교법인 이사는 북구를 조직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광산 갑엔 김용채 전 한국청소년육성회 광주광산지회장이, 광산 을엔 송환기 전 한나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장이 각각 선정됐다. 유수택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조직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당정비보강 및 당 외연확대 등 당체 확충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처럼 최고위원회를 비롯해 이번엔 선임된 조직위원장과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컨설팅부, 배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평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근린시설 / 근린주택

▷ 서구 풍암동 2층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18㎡ 건물440㎡ 감정가4억2천 최저가12억9천5백

#### 단독주택

▷ 서구 봉성동 2층주거 2층단독주택 대지158㎡ 건물150㎡ 감정가1억7천7백 최저가1억2천4백

▷ 동구 지산동 주거지역 2층단독주택 대지165㎡ 건물172㎡ 감정가1억1천5백 최저가78천

▷ 화산 능주면 2층주거 2층단독주택 대지1400㎡ 건물230㎡ 감정가1억2천2백 최저가19천7백

▷ 장성 황룡면 관리지역 단독주택 대지823㎡ 건물235㎡ 감정가1억1천 최저가71천8백

#### 공장

▷ 북구 용전동 대지2315㎡ 건물1543㎡ 감정가22억7천4백 최저가18억2천

▷ 장성 통화면 대지6300㎡ 건물1365㎡ 감정가14억2천 최저가16억3천5백

#### 토지매매

▷ 동구 내남동 도심권교 주거지역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 최상 대지750㎡

▷ 무안 해제면 계획관리지역 마을내 전망 좋은 전1243㎡ 임야2400㎡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 탐공인증개사

(서구광천동650-205 대림6-편한세상아파트 후문)

#### 광주전역 원룸 매매 전문

서·광산·남·북·동구지역 금메달전 다량확보

① 처평동, 중심상업지역, 5층신축, 토지235㎡, 건물685㎡, 사무실, 원룸4개, 투룸6개, 최고급인테리어, 10억4천5천만 원 (보1억/월500, 용4억)

② 생촌동, 역세권 신축, 4층, 원룸투룸25, 토지431㎡, 건물660㎡, 마9억4천5천만 원(보6000/월950, 용1억/엘레베이01) 수익률13% 추가

③ 금호동, 명차골목, 4층, 원투쓰리룸13개, 토지231㎡, 371㎡, 마5억9천8천만 원(보1억2천/월390만 원, 용1억7천)

④ 유촌동, 4층, 토지346, 건물510㎡, 원룸12투룸5쓰리룸3 마8억(2억/650, 용2억)

⑤ 내방동, 4층, 토지430, 건물772㎡, 인접, 원룸30쓰리룸1 마9억(보42000/월300, 용5천)

⑥ 봉성동, 신축, 4층, 토지412㎡, 건물660㎡, 원투룸17, 쓰리룸2, 마8억4천5천만 원(보27000/월600)

⑦ 신안동, 신축, 4층, 토지264㎡, 건물500㎡, 원6투룸9 마7억7천(보15000만 원/ 월500, 용3억)

⑧ 운암동, 토지290㎡, 건물422㎡, 4층, 인접, 원룸14개 마7억4천2천만 원(보5000 월/ 510, 용3억)

⑨ 신창동, 신축, 4층, 280㎡, 건물415㎡, 원투룸19 마6억4천2천만 원(보7000 월/400, 용15000)

⑩ 신기동, 4층, 토지363㎡, 건물575㎡, 원룸10, 투룸9 마7억6천만 원(보1억/월600)

⑪ 화정동, 4층, 토지313㎡, 건물455㎡, 원투룸18 마6억4천2천만 원(보5000/월610, 용2억) 수익률13%

⑫ 쌍촌동, 4층, 토지270㎡, 건물495㎡, 원투룸24, 인접 마6억2천만 원(보5000/월700)

⑬ 장덕동, 4층, 상가, 인접, 토지266㎡, 건물478㎡, 원투룸10, 마6억9천8천만 원(보32000/월400, 용12000)

★매도/매수하실분 상담환영★  
★비밀절대보장, 신속한업무처리★  
★수익률10% 이상물건진행★  
★구인: 원룸/상가임대/성실한분모심★  
062)368-0789, 010-3671-7145

### 금당 공인중개사

#### 건물매도

- 요양시설 투매, 화순군 도곡 대지 302평 건평 505평 4억7천
- 중앙로 주택, 대지 27 건평 30 공사가 199200 매도 1억7천
- 유동로 대지 240 건평 818 매물 18억 병원, 사옥, 요양시설 직접 법인 이전 24억 전세매도가능
- 북구 화양동 땅 710평 주택 2채 있음 사철등 적함 2944천만 원
- 중앙로 5가 2층 상가 대지 27 건평 30 매도 2억2천
- 시내 LPG충전소 대지 1014 매물 11억9천 매도 19억
- 계림동 버스도로 대지 93 건평 293(6층건물) 3944천

#### 나대지

- 총정리5가 상업지역 104평 주택은 할거해야함 원룸, 생활주택적합 공사지가 2억5600 매도 2억4천
- 중흥동 상업지역 166평 37기, 코너공사지가 4억7천 매도 5억3천
- 계림동 상업지역 155평 공사지가 6억3300 매도 5억
- 신안동 전남대 앞 4거리 대면인 상업지역 249평 생활주택형 오피스텔 적함 공사지가 9억 4천 매도 7억7천
- 전원주택지 담양군 고서면 150평 6500만 원
- 가도원 적함 오피스 동면 산15667평 매도 2억43천
- 공평지역 항공권 해보면 국도급 1725평 2억48천
- 공평지역 나주시 반남면 장동지 2100평 5억

#### 다세대 주택부지

- 서구 양동 양동시장 근처 1층주거지 508평 24평형 다세대 주택 28세대 허가 매도 7억93천
- 쌍촌동 2층 주거지 737평 대출 8억 매도 14억5천

#### 담보용 물건

- 강원도 춘천시 집합건물중의 지하 2층 377평 법상가 34억6천 감정가 12억 9천 법인이전할 매도 5억4천만 원
- 남구 송화동 산 8850평 면적이 2억 7300 매도 1억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고홍센터 옆

### 수원지구 상가임대

#### 1층~7층 (20평~210평)

분할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학원/병원 한의원/독서실 편의점/약국

#### 분양임대시 특별할인중

교환, 매매 전문

#### 상가

3억~100억까지 교환 및 매매합니다. 토지/아파트/상가/기타

주)신원아이디 062)527-7600

### 역세권 상업지 토지구매

운천역 1분 코너

#### 중심상업지 250평

최고위치!!

상가, 도시형 오피스 적합

★매기 상담후 결정★

#### 원룸매매(신축)

전대, 조대

쌍촌동 수원지구 5억부터 12억까지

062)961-3377

###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광교동건(상가빌딩매매)

- \* 서구 수원지구 상가빌딩 대지 180평 건평 873평
- \* 서구 수원지구 상가빌딩 대지 501평 건평 1415평
- \* 서구 수원지구 상가빌딩 대지 150평 건평 884평
- \* 서구 화정동 로마.이마트부근 모텔 대지 99평 건평 344평 룸 00실
- \* 남구 진월동 상가빌딩 대지 620평 건평 2181평
- \*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 상가빌딩 대지 156평 건평 600평
- \* 북구 유암동 동강대후로 원룸 대지 717평 건평 98평 방 15실
- \* 광산구 우산동 상가빌딩, 웨딩홀 대지 1741평 건평 944000평
- \* 광산구 신창동 보건대 부근 대지 630평 건평 460평
- \* 나주시 남내동 상가빌딩 대지 1199평 건평 210평

#### 광교동건(토지매매)

- \* 상무지구 차평동 대지 1000평
- \* 서구 서창동 대지 948평
- \* 북구 유암동 대지 500평
- \* 광산구 숭산유원지부근 대지 101010평
- \* 광산구 수원동 대지 10,737평
- \* 나주 금천면 원곡리 대지 3,200평
- \* 나주 왕곡면 옥곡리 대지 1,900평

#### 최상의 전원주택적합 부지매매

- \* 무안군 해제면 참매리 지도방향 바닷가부근 대지 2,340평
- \* 장성군 남면 행정리 대지 500평
- \* 광양읍 덕려리 대지 2,800평

956-6660-010-2139-6255